

[사회]

보험수가 반발 車정비업계 “요금 직접 받겠다”

호남지역 車수리 대혼란 예고

2개 손보사와 계약 해지...내달부터 직불제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삼성·동부화재에 가입한 광주와 전남·북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정비를 할 때 정비업소에 직접 요금을 납부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조정래·이하 조합) 등은 다음달 1일 정비요금 제계약에 불성실하게 임해 온 삼성·동부화재와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수리 고객으로부터 직접 요금을 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은 오는 23일까지 조합에 가입된 정비업체로부터 이들 보험사의 계약 해지서를 수거해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7일간의 교섭기간을 갖은 뒤 보험사의 응답이 없을 경우 ‘요금 직불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업체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운전자들은 차량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

급받은 후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거나, 보험사와 계약한 다른 정비소를 찾아가야 한다. 현재 광주와 전남·북에서 ‘요금 직불제’에 참가키로 한 정비업체의 수는 ▲광주 140여 곳 ▲전남 220여 곳 ▲전북 220여 곳 등 580여 곳에 달한다. 광주와 전남·북에 등록된 자동차 165만여 대 중 삼성·동부화재에 가입한 차량은 30%가량인 50만여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체들이 이 같은 단체 행동은 적절한 정비수가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는 현행 1만8천200원선인 정비수가 하한선을 2만3천원으로 2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손해 보험사들은 조합 관계자는 “손해 보험사들은

거의 8년 가까이 정비 요금을 동결해 영세 정비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한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조합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객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요금 직불제”가 강행되면, 고객들이 납부한 정비요금을 당일 온라인으로 환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정비수가=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는 수리비용. 지난해 건교부는 ‘정비요금공표제도’를 통해 정비수가를 전년도보다 25% 인상(시간당 1만8천228원~2만511원)했다.

전남 여객선사 ‘FTA 특수’

제주 협상 앞두고 경찰·농민 9천여명 운송

경찰 운임료만 6억여원

목포와 완도, 고흥 여객선사가 때마침 호황을 누리게 됐다. 오는 23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 FTA 4차 협상’을 앞두고 경찰과 농민회원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목포·완도·고흥 녹동항을 통해 제주로 들어가는 경찰은 82개 중대 8천200여 명, 전남지역 13개 중대 1천500여 명은 경비정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병력은 여객선을 탈 계획이다. 전경 버스와 물대포 등 차량 510대도 배편으로 운송된다.

비용은 ▲버스 1대당 도선비(목포 기준) 39만9천원 ▲경찰

트럭 26만5천원 ▲경찰 지프 13만9천원. 경찰 1명당 운임(20% 할인)은 1만7천750원으로, 배차만 총 6억여원이다.

경찰은 자치단체의 시·군민회관과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빌려 병력을 하룻밤 재운 뒤 오전 배편으로 제주로 출발시킬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1주일 여 주둔한 뒤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FTA반대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농민과 노동자 등 시위대 400여 명도 여객선 편으로 제주로 떠날 예정. 경찰과 시위대가 한 배를 타고 가는 ‘동상이동’(同床異夢)의 모습도 구경하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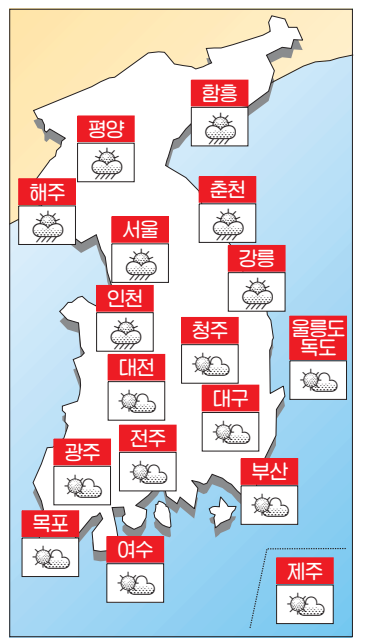
내일 ‘여우비’ 온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맑은 뒤 오후 늦게 흐려지겠다.

10월 19일

(음 8월 28일) <전국날씨>

광주	차차 흐려짐	14~26℃
목포	차차 흐려짐	15~25℃
여수	차차 흐려짐	18~24℃
순천	차차 흐려짐	15~25℃
해남	차차 흐려짐	13~27℃
영광	차차 흐려짐	11~26℃
영암	차차 흐려짐	11~26℃
강진	차차 흐려짐	12~24℃
보성	차차 흐려짐	11~26℃
고흥	차차 흐려짐	13~25℃
진도	차차 흐려짐	14~26℃
곡성	차차 흐려짐	9~26℃
담양	차차 흐려짐	14~25℃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0:22 썰물 < 05:48
 12:38 18:00
 여수 밀물 < 07:33 썰물 < 01:21
 19:42 13:33

▲해돋이 06:41 ▲해질 17:53 ▲달뜨기 03:46 ▲달짐 16:27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날씨						
최저/최고	16/23	12/24	13/22	14/22	9/22	10/21

도난당한 전남 문화재 돌아온다

백양사 탕화 등 절도범·매매상 붙잡아

전남 지역 사찰과 서원 등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들이 원래 소장처로 돌아오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도난 문화재를 취득·은닉한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로 H박물관 관장 권모(65)씨와 M박물관 관장 박모(58·기간문화재)씨, 서예가 문모(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1990년대 초부터 장성 백양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고택·서원 등에서 도난당한 문화재 총 252점을 전문 절도범·미술품 매매상 등을 통해 구입한 혐의다.

이들이 보관해온 문화재에는 ▲장성 백양사 탕화 ‘아미타 회상도’ ▲나

주 불회사 범종 ▲영광 내산서원 ‘강감회요목관’(전남유형문화재 제213호) 264권 ▲해남 대흥사 사천왕도 2점 ▲승주 선암사 향로 등 전남 문화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실 박물관을 운영하는 권씨와 박씨는 이들 문화재를 1990년대 초·중반에 취득한 후 10년 넘게 집이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전사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절도범들은 공소시효가 끝나면 공개하거나 거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에 되찾은 문화재도 관람객들에 의해 도난당할 임박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학교 56% 보건교사 없어

배치율 제주 다음으로 낮아

전남 일선 학교의 44%에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우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859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가운데 44%인 378개교에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

이 같은 배치율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제주 다음으로 낮은 것이다.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율은 ▲초등학교 55% ▲중학교 23% ▲고등학교 44% 등이었다. 중학교의 보건교

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5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7학급 미만 학교가 197개교로 전체 학교의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14명에 그쳤다. 특히 6학급 미만 학교는 123개교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도 배치된 보건교사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학급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료시스템이 부재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보건교사마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대리번역 논란 ‘마시멜로’

소비자들 손해 배상 내기로

아나운서 정지영씨의 대리번역 논란(본보 10월13일자 15면)을 불러 일으켰던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한경BP 펴냄)와 관련, 소비자들이 정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흥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이를 위해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에 ‘정지영 대리번역 대역’이라는 제목의 카페(http://cafe.daum.net/chlee5733)를 개설했으며, 18일 오후 6시 현재 700여 명이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계기로 출판업계가 거듭나고, 소비자들에겐 더 좋은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씨와 출판사에게 소비자 1인당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

중·일 교과서 왜곡 대응

국사 수능 필수과목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중국·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과목 독립과 수능시험 국사 필수과목 지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들이 입학전형자료로 수능시험을 활용할 때 국사과목을 적극 반영하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수능시험에서 국사는 윤리·한국지리·한국 근현대사·세계사

등과 함께 11개 사회탐구 선택 과목 중 하나로 처리되고 있다.

이외 2009년부터 중·고교 사회과목에 포함돼 있는 세계사와 국사를 분리해 별도의 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교침=본보 17일자 1면 ‘광주·전남 지역대학 비인기학과 신입생 모집 중단사태’ 기사 중 대불대의 기술교육과는 폐지대상 학과가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대불대는 “사범계열인 기술교육과는 정상적인 모집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 절 받으세요” 18일 오전 열린 광주향교 기로연(耆老宴)에서 한복을 곁들여 차려 입은 어린이들이 할아버지들에게 절을 하고 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에 70세 이상의 원로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에서 베푼 잔치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판소리 명창 대통령상 박춘맹씨

제14회 임방울 국악제

18일 막을 내린 ‘제14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에 출전한 박춘맹(43·전남도립국악단원)씨가 영예의 대통령상(상금 1천500만원)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20면> 광주 관산 출신인 국창 임방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6~

18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등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판소리·기악·농악·무용·시조 등 5개 분야에 모두 260개팀 580명이 출전, 57명(학생 35명)이 입상했다.

◇명창·일반부 입상자 명단 ▲대상(대통령상)=박춘맹 ▲최우수상=양은희(판소리 명창부) 김미진(판소리 일반부) 정윤혜(기악)

김영연(무용) 이정아(가야금 병창) 화성농악(농악)

▲우수상=성미숙(판소리 명창부) 권송희(판소리 일반부) 박혜련(기악 일반부) 이유라(무용) 이승재(시조 일반부) 유성실(가야금 병창) 진주영(농악) ▲준우수상=김형주(판소리 명창부) 백현호(판소리 일반부) 김준희(기악 일반부) 박서연(무용) 양동규(시조) 장하다(가야금 병창) 부산농악(농악)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대사업자 및 직원 모집

10월 20일 (토) 10:00 ~ 14:00

도곡종합관광호텔

270,000원을 돌려준다구?

왜? 어째서?

교육부 수능시험 필수과목 지정

www.littlechina.co.kr